

지역 소식 통

정읍시-필리핀 나역시

계절근로자 합동 모니터링

정읍시가 업무협약(MOU) 체결 필리핀 지자체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18일부터 22일까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MOU를 맺은 필리핀 나역시가 직접 정읍을 방문해 시, 정읍시가족센터(통역사)와 함께 진행한다.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와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이탈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이탈 사례를 공유해 불법 체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법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아울러 송출국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유지,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계절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웹툰 공모전, 역대 최다... 전국 규모 도약

제3회 정읍 웹툰 공모전이 역대 최다인 61편의 응모작을 기록하며 전국 규모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공모전은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78일간 진행됐으며, 2023년 1회 37편, 2024년 2회 39편에 비해 출품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전남 완도, 경남 창원, 강원도 철원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이 접수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는 전문가들의 2차 심사를 거쳐 총 9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1894년 조선 말기 탐관오리의 횡포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그린 '겨울 그리고 겨울'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구절초 : 어머니를 위한 이야기, 우수상은 '정읍에서 다시 봄'과 '갈매기 머문 산새'가 각각 차지했다. 심사위원단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정읍의 문화·역사 인물을 조명한 작품이 많이 접수돼 고무적"이라고 총평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변산 비치팸' 체류형 야간관광 호응

변산해수욕장 일원서 개최... 젊은 세대 · 가족 단위 등 방문 야간관광 지속성 기대

부안군이 2025년 여름을 맞아 시범 운영한 변산 비치팸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8월 2일부터 17일까지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남미 해변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부안의 청정 해변 경관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야간관광을 선보였다.

다양한 공연과 식음료 콘텐츠가 어우러진 현장은 연일 활기찬 열기로 가득 찼으며, 특히 젊은 세대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방문해 부안의 여름밤을 함께 즐겼다.

변산 비치팸은 변산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잠깐 들렀다 떠나는 해수욕객이 아닌 해변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기획, 여름철 주간 방문객을 분산시키고 야간 시간대에도 활기를 넣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번 운영 결과 행사 기간이 진행될수록 평일에도 해변을 찾는 야간 방문객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해수욕장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여름 행사 이상의 효과로 부안군이 목표로 했던 체류형 소비 촉진과 야간관광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으며 향후 정례화와 브랜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행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기존의 해변 행사들과 확실히 구분되는 독창적인 콘셉트 덕분이었다. '남미 해변 감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변산 비치팸'은 대형 야외수장식과 라틴 음악, 재즈 공연이 어우러져 마치 이국의 해변 리조트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쿠비종 각테일과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카바레에서는 아국적인 맛과 향이 더해져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유치기업 에스비푸드 연내 공장설비 마무리

고추종합유통센터, 관련법 · 조례 근거 투명하게 매각... 본질 왜곡 주장 일축 '정상적 사업추진'

고창군은 식품원료 제조업체인 (주)에스비푸드 관련 '연내 공장설비 구축 완료 등에 문제가 없다'며 최근 이른바 '짜라시' 형태로 떠돌고 있는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군은 고추종합유통센터 건물 매각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 적법한 행정절차로 매매계약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해당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시 수익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창군은 법령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했고 이는 고창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

가 되고 있다.

(주)에스비푸드는 당초 운영 효율이 떨어져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고추종합유통센터를 매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기업이다.

지난해 7월 매각대금을 완납했고 1차 설비 제작을 위한 계약을 마치고 공장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고추종합유통센터 내 저온창고도 에스비푸드에 매입해 직접 소유·관리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이 에스비푸드에 매각한 고추종합유통센터는 건립 이후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건물만 노후화되면서 처치 곤란을 겪었던 건물이었다.

심덕섭 군수 취임 이후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기업매각이 추진되고, 수도권 소재 중견 식품원료 기업인 에스비푸드 측과 긴밀한 소통 끝에 매각이 이뤄졌다.

특히 매매 계약서에는 '30명 채용 또는 조달하는 원자재의 30%를 고창농산물로 구매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업체의 불이행시 고창군이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할 정도로 계약은 군과 지역의 이익이 최우선됐다.

(주)에스비푸드는 3단계로 나눠 투자를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 1차 제조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아 2026년 상반기에는 본격 제품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새 시민소통위원회 출범

정읍시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소통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와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재구성은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감 있는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새롭게 출

범한 시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시정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의 개선·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생활불편 해소와 제도개선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공감·소통창구로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정읍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정읍소통방'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을 아우르는 의견 청취 체계를 운영,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속의민주주의 실현에도 힘을 보탤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비상사태 대비 태세 점검

정읍시, 2025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 기관 소산 훈련

정읍시는 18일부터 진행되는 '2025년 을지연습'에서 비상소집과 기관 소산 훈련을 연이어 진행하며 전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오전 6시에 진행된 '2025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은 공무원의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고 전쟁 상황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 등 응소 제외자 94명을 제외한 응소대상자 1070명 전원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응소하며 철저한 비상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정부기관 소산·이동 훈련이 이어졌다. 전시 상황에서 행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

수 인력과 장비, 문서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절차를 실시한 것으로, 50여 명이 참여해 통신·전산 장비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전시 행정수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위기관리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합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쟁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치 훈련과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 검토, 기관별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학수 시장은 "을지연습을 실제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을지연습 함께 해요"... 고창군 을지연습 시작

고창군이 '2025년 을지연습'을 18~21일(3박4일) 실시한다.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는 실전연습을 통해 완벽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 목표로, 실제훈련과 안보의식 고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을지연습 첫날 공무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이를 통해 비상소집 명령 전달체계, 비상연락망 가동 여부, 비상소집 문자·전화 발송 장비의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서 최초상황보고회를 시작으로, 전시작전 편성 훈련과 기관 소산·이동 훈련, 전시창설기구 설치 및 운영 훈련 등을 통해 전시전환절차를 숙달

하고 전시 임무 숙지와 총무사태별 조치사항 등을 토의한다.

연습 2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해 적 특작부대의 테러위협에 대비해 도상연습하고 다중이용시설 테러 및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2시에는 공습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고창군은 이날 오후 2시 민방공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주민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가까운 건물 지하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이동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하는 등 대피훈련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5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8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초보고회에서는 연습개시상황 보고, 군수의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으며, 군사·정부 연습 상황을 공유하고 국가 위기관리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을지훈련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절차와 방법을 숙달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전시 행정 체제로 전환하는 훈련으로, 군은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을지연습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실제훈련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